

# Atmosphere I .

## 모든 문제는 경작되지 않은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 1. Atmosphere?

\* 사전적 정의 : 지구 전체를 둘러싼 대기, 특정한 장소의 공기(예-오염된 도시의 공기), 분위기, 주위의 상황, 특정 장소·물건이 가지는[빛어내는] 분위기, 무드, 느낌, 정취 등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공기(분위기)’가 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장소마다 사람마다 형성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놀라운 일이다. 무엇이냐고 물리적으로 정의할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 각 상황마다 다른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각 나라마다의 분위기가 있다.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 각 나라마다, 문화적 배경이 특별하고 완전히 다른 지역의 분위기가 있다. 나라와 지역마다 독특하게 형성된 분위기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굳이 ‘분위기’를 정의해 본다면,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근접하다고 할 수 있겠다. 지역과 나라마다 분위기가 다르기도 하지만, 시대적 배경에 따라 분위기가 다르다 (경제공황, 전쟁, 중세 등 생각하면 떠오르는 분위기가 있다). 어떤 이념을 따르는가에 대한 분위기 또한 다르다 (사회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등).

분위기는 개인에게도 나타나는데, 각 사람에게 풍겨나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다. 그리고 사람의 감정에 따라 분위기도 매일 달라진다. 놀라운 사실은 그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런 공동체가 모여서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다르다. 초대교회의 분위기와 현대 교회의 분위기는 다르다.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삶과 시대적 배경 등, 여러가지를 조합해서 생각해 볼 때 충분히 느껴질 수 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잇모스피어’를 생각해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도와 교회가 만들어내는 공기는, 분명히 세상이 만들어 내는 공기와 다르다. 성경을 보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영적공기는 분명히 달랐다. 다윗은 좋은 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라. 무엇인가 알 수 없지만, 숨도 쉴 수 없는 두려움과 모든 것을 짓누르는 듯한 분위기가 그 당시 현장의 분위기였을 것이다. 이 두려움의 공기를 한 순간에 승리의 공기로 변화시킨 사람이 다윗이다.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며, 패배감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의 공기를 한 순간에 뒤집어 버렸다.

[사무엘상 17:51-52]

51 달려가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것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베어 버렸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대장이 죽은 것을 보고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52 이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승리의 환호성을 울리며 달려가 블레셋군을 가드와 에그론 성문까지 추격했는데 블레셋군의 사상자들은 가드와 에그론으로 가는 사아라임 길에 즐비하게 쓰러졌다.

골리앗을 믿고 기세등등 했던 블레셋의 공기는 두려움과 공포로 변했다. 달아나기 시작했다. 반면에 죽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승리의 환호성을 울리며 달려갈 정도로 살아나기 시작했다. ‘승기’를 잡은 것이다. 즉, 현장의 분위기가 역전 되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예는 에스겔 37장의 마른뼈 환상이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마른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간다. 이곳 골짜기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라. 죽음, 두려움, 절망, 공포 등과 같은 단어로 그 분위기를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도록 하셨다.

바로 그 때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와 골짜기에 가득했던 죽음의 공기를 생명의 공기로 전환시켰다. 뼈들에 살들과 근육이 붙기 시작하더니, 보통사람 정도로 회복된 것을 넘어서, 그들이 군대가 되었다. 마른뼈가 전의가 불타오르는 군대가 된 것이다. 이것은 마른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었다. 이 예언을 선포한 에스겔의 마음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 같다. 절망의 상황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을 넘어서 부흥의 환상이다.

## 2. 영적공기

시대마다 어떤 사람, 어떤 공동체가 서있느냐에 따라 그 시대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오늘날 성도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세상이 만들어가는 강력한 분위기가 있다. 이것은 필경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위기는 아니다. 에덴동산의 생명과 기쁨, 평화가 가득했던 분위기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분열, 절망의 분위기로 일순간 변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했던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쏟아내는 죽음의 땅이 되었다.

노아의 시대는 어떠한가? 인간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할 정도로 악한 영적공기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었다. 홍수심판 후 타락한 인간은 바벨탑을 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공기를 만들어 내었다.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영적공기는 그 후로도 지속되어 왔다. 그런데 그 때마다 세상의 공기를 하나님 나라의 공기로 전환시킨 사람들이 있었다.

### (1)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영적공기

세상에는 두 가지 역사가 존재한다. 하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행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시간이며, 또 다른 하나는 타락한 인간이 주도하는 세상의 시간과 역사이다. 역사를 보라. 하나님 없는 세상이 만들어 낸 번영과 발전의 공기를 보라. 그리고 앞으로 발전할 미래의 공기를 예측해 보라. 희망보다는 절망이다. 인류의 역사안에는 언제나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에 엄청난 희생과, 아픔과, 상처가 가득했다. 문명은 발전해서 더 똑똑해지고, 강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만들어내는 역사의 공기는 분열, 아픔, 타락, 깨어짐과 같이 모든 영역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세상이 만들어내는 공기가 과연 우리 인간이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진정한 공기인지 물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만들어낸 역사는 그렇지 않다. 그 곳에는 치유와 회복과 생명이 있었다. 헌신과 희생의 가치 아래에서 보여주었던 사랑의 공기는 아픔이 있는 곳에는 치유를, 묶임이 있는 곳에는 자유를, 분열이 있는 곳에는 화합을 가져왔다. 사람들은 그 곳에서 비로써 숨쉬며 살 수 있었다. 따라서 세상의 영적공기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는 넓게 적용할 필요도 없다. 우리 내면안에 그리고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 (2)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영적공기를 생각해 보라. 코이노니아를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자신의 물건들을 나누어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공기였다. 그리고 다시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는,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힘이 있는 공동체였다. 이곳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흐려진 공기는, 마치 탁한 공기가 들어왔을 때 공기청정기가 붉은빛을 내고, 경고등을 켜면서 청정공기로 만드는 것과 같다.

### (3)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가? 하나님을 잘 알았고 은사도 뛰어났지만, 그들이 만들어 낸 공기는 분열과 다툼 그리고 타락, 가정과 인격의 파괴와 같은 공기였다. 이런 교회에서 성도들은 숨쉬며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왜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 (4) 개인과 가정

공동체 뿐만아니라 개인과 가정에서도 나타난다. 내면세계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영적 공기는 파멸과 분열, 비판, 정죄함, 폭력, 음란이 가득하다. 이런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족의 분위기는 매일이 지옥과 같다. 가만히 생각해보라. 놀랍지 않은가? 타락한 세상이나 타락한 개인의 마음이나 분열, 시기, 아픔, 파멸, 절망과 같은 키워드는 동일하다. 사이즈만 작아졌을 뿐이지 동일하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 세상(예-이스라엘, 부흥이 있었던 영국과 평양, 미국 등)이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개인의 마음에 담겨진 키워드는 생명, 소망, 회복, 기쁨, 부흥, 자유 등과 같이 동일하다.

### 3. 우리가 만들어야 할 영적공기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내면에 모두 있다. 결국 인간의 내면의 공기가 바깥으로 나타난 것이며, 크기만 다르게 적용되었을 뿐이지 그 시작점은 인간의 마음안이다. 우리 내면의 공기가 어떤 상태로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한다. 이에 대해 성경은 확실한 예로 대답한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이다.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었던 에덴은 땅의 왕 같은 권위를 부여받은 인간에게 있었지만, 결국 인간의 잘못된 통치로 모든 공기가 변화되었다. 그 후 예수님은 실패한 첫 번째 아담의 모형을 따라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를 말씀 하셨고, 그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밝히셨다. 그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숨 쉴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잠시였지만 하나님 나라를 맛 보았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 소망, 치유, 회복, 기쁨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 공기가 이 땅에 임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팔복을 통해서 타락한 마음을 정결했고, 천국백성의 진짜 가치를 발견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셨던 나라의 공기는, 지금껏 그들이 경험했던 세상의 공기와는 차원이 달랐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영적 공기를 다스리는 예수님의 영향이다. 한 사람의 존재감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공기를 전환 시켰다.

### 4. 오순절 사건과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에게 있었던 모든 죽음의 공기를 영원한 생명의 공기로 변화시켰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부탁하셨다.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8]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통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처럼 이 땅의 공기를 하나님 나라의 공기로 변화시킬 것에 대한 확증이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먼저 성령이 임했는가? 예루살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성령이 예루살렘에 먼저 임하신 것은, 예루살렘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통치가 성령님을 통해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기는 제자들을 통해서 급하게 번져간다. 세상의 공기가 결코 변화시킬 수 없는, 강력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 5. 내면의 예루살렘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도 예루살렘과 같다. 즉, 왕이 있다는 것이다. 작은 것만 같은 인간의 내면에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 모두가 있다. 문제는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며, 세상의 나라는 타락한 내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나라이다.

내 힘으로 내면의 예루살렘의 공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곳은 생명과 소망, 기쁨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 형성된 영적공기가 충만한 곳이다. 우리 내면에 예루살렘의 통치가 충만해지는 그 순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통치가 확실해진다. 바로 이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통치가 이 땅에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예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구하자. 그리고 성령님의 통치로부터 맺혀지는 놀라운 하늘의 영적공기가 내면에 충만하기를 기도하자. 나의 내면에서 시작된 변화의 공기가, 결국 내 주변을, 공동체를,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다.